

GIST-전남대 의대, 차세대 의사과학자 공동 양성 나섰다

K-바이오 미래 이끌 'G-STAR 프로그램' 가동 과기정통부 바이오·의료기술개발 사업 선정

- 4년간 34억 원 투입해 공동 미니학위 운영·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하고 차세대 바이오·의료 융합인재 60명 이상 양성... 기초과학과 임상의학 아우르는 교육·연구 모델 구현
- AI·면역치료·우주의학 등 6대 특화 분야 중심... 공동 교육·연구 플랫폼 구축 본격 추진



▲ GIST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'바이오메디컬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G-STAR 프로그램 개발' Kick-Off 미팅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전남대학교(총장 이근배) 의과대학과 공동 기획한 'G-STAR(Global Scientist Training for Advanced Research) 프로그램 개발*' 과제가 최근 연구·의료계에서 새로운 융합형 인재 양성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.

이 과제는 지난 4월,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바이오·의료기술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, GIST 의생명공학과 김재관 교수가 주관연구기관 책임자를,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채용 교수가 공동연구기관 책임자를 맡아 추진 중이다.

두 대학은 올해부터 4년간(사업기간: 2025. 4. - 2028.12.) 총 34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60명 이상의 의사과학자 및 바이오메디컬 융합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.

* 과제명: 바이오메디컬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G-STAR 프로그램 개발

'G-STAR 프로그램'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차세대 융합형 인재, 특히 **임상과 기초과학을 아우르는 의사과학자(physician-scientist) 양성을 목표로 기획된 교육·연구 통합 플랫폼**이다.

단기 교육에 그치지 않고, **한국형 의사과학자 양성 모델을 정립한 뒤 이를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해 K-바이오의 세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**

현대 의학은 기초과학과 임상의학 간의 긴밀한 연계를 필요로 하지만, 국내에는 연구 중심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.

매년 약 3,300명의 의학계열 졸업생 중 기초의학 연구 분야로 진출하는 비율은 1%도 되지 않는다.

이에 따라 **GIST와 전남대학교는 의료 현장의 통찰력을 과학 연구로 연결하고, 연구 성과를 다시 환자 치료로 이어 주는 '양방향 가교'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G-STAR 프로그램을 설계했다.**

이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**GIST는 AI·의생명공학·우주의학 등 첨단 융합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는 실증 중심의 교육 기반을,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면역치료 및 정밀의료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다.**

G-STAR 프로그램은 ▲의사과학자-의공학자-의생명과학자 간 융합교육 ▲학점 교류 및 공동학위 운영 ▲미니학위 과정 개설 ▲해외연수 및 성과 교류회 개최 ▲6대 특화 분야(의료 AI, 면역치료, 우주의학, 바이오인포메틱스, 뇌과학, 디지털 헬스케어) R&D 프로젝트 수행 ▲실험실 인턴십, 프로젝트 기반 연구 참여 기회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.

특히 참여 학생들은 GIST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**미니학위 과정을 통해 의과학 및 의생명공학 분야의 핵심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, 이수 내역은 학위증명서 또는 성적표에 표기될 예정이다.**

또한, GIST와 전남대 두 대학에 각각 전담 사무국을 설치해 학사 및 연구 행정의 통합 운영을 도모하고, **참여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진로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.**

GIST 의생명공학과 김재관 교수(주관연구기관 책임자)는 "G-STAR 프로그램은 의학과 과학, 공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, **미래 의료 혁신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의 초석이 될 것**"이라고 말했다.

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채용 교수(공동연구기관 책임자)는 “이 사업은 그간 숙원 과제였던 의사과학자 양성의 실현이자, **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의학 연구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**”고 밝혔다.

한편, GIST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**2010년부터 공동 연구와 교육 협력을 지속해** 왔으며, 이번 G-STAR 프로그램을 계기로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.

향후 두 대학은 **AI 기반 의료진단, 정밀 면역치료, 우주의학 등 다양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, 글로벌 의사과학자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K-바이오의 세계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** 방침이다.